조사보고서 2022-3

2022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

2022. 6



I . 조사의 개요

1. 조사목적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정부 및 시·도 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

2. 조사기간, 조사방법

♦ 2022년 2/4분기(4, 5, 6월) : 실적기간

♦ 2022년 3/4분기(7, 8, 9월) : 전망기간

♦ 조사기간 : 2022. 6. 13. ~ 2022. 6. 24. (휴일제외 10일)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3. 조사대상

♦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사

♦ 응답개수 : 69개 (설문지 회수율 : 37.1%)

4. 조사내용

-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5. 집계·분석

◆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처리

6.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 기업 경기 실사지수(BSI)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증가(+)표시업체 수 - 감소(-)표시업체 수 × 100 + 100 총 유효 응답 업체 수

BSI = Business Survey Index (0≤BSI≥200)

◆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

Ⅱ. 2022년 3/4분기 기업경기 전망

1. 종합전망

가. 개황

- ◆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설문지 회수 : 69개, 회수율 : 37.1%)으로 2022년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2.3' 로 조사되었음.
- ◆ 이중, 석유화학 연관업종(n=38개)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BSI)는 '60.5' 임

나.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

【종합 (N =69)】

	전체	
구 분 항 목	2022년 2/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2년 3/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75.4	62.3
매 출 액	88.4	78.3
영업이익	76.8	68.1
설비투자	89.9	81.2
공급망안정성	75.4	79.7
자금조달여건	75.4	81.2
공장가동여건	81.2	87.0

【석유화학 연관업종(N=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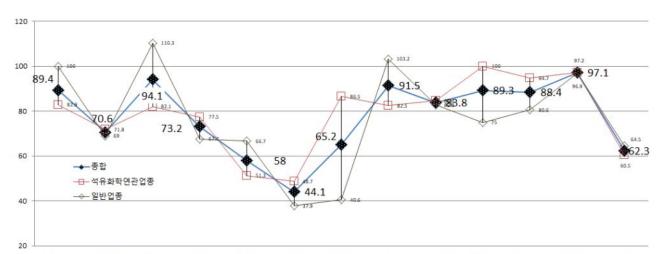
	전체	
구 분 항 목	2022년 2/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2년 3/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78.9	60.5
매 출 액	89.5	81.6
영업이익	81.6	71.1
설비투자	92.1	86.8
공급망안정성	76.3	86.8
자금조달여건	86.8	92.1
공장가동여건	86.8	89.5

【일반업종(N=31)】

	전체	
구 분 항 목	2022년 2/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2년 3/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71.0	64.5
매 출 액	87.1	74.2
영업이익	71.0	64.5
설비투자	87.1	74.2
공급망안정성	74.2	71.0
자금조달여건	61.3	67.7
공장가동여건	74.2	83.9

2. 설문 결과 분석

- ◆ 2022년 3/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BSI, n=69)는 '62.3' 로 조사되었다.** 응답 개수 : 69개 (설문지 회수율 : 37.1%)
- ◆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부정적"인 결과다.
- ◆ 2020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체감경기 추이는 2022년 3/4분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 89.4(2019년 3분기)→ 70.6(2019년 4분기)→ 94.1(2020년 1분기)→ 73.2(2020년 2분기)→ 58.0(2020년 3분기)→ 44.1(2020년 4분기)→ 65.2(2021년 1분기)→ 91.5(2021년 2분기)→ 83.8(2021년 3분기)→ 89.3(2021년 4분기)→ 88.4(2022년 1분기)→ 97.1(2022년 2분기)→ 62.3(2022년 3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5분기 2021년 3분기

그림 BSI 추이 (2019년 3/4분기 ~ 2022년 3/4분기)

- ◆ 조사결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高) 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인건비 상승, 전기료 인상 등 기업의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지난분기 대비 34.8 하락한 (97.1 → 62.3) 경기전망지수를 기록했다.
-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분기대비 36.7 하락, 일반제조 업종은 지난 분기대비 32.4 하락하면서 업종에 구부 없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경기전망지수를 나타냈다.
 - 석유화학 연관업종 : 97.2(22년 2/4분기)**→**60.5(22년 3/4분기), 36.7 **하락**
 - 일반제조 업종 : 96.9(22년 2/4분기)→64.5(22년 3/4분기), 32.4 하락
- ◆ 원료수입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우,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에 따라 제품 스프레드가 하락했으며 물류비· 인건비 상승과 전기료 인상 등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신증설 설비의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현상이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경기전망지수가 지난 분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97.2 → 60.5)
- ◆ 일반제조업종의 경우,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에 생활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지난 분기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로 개선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96.9 → 64.5)

◆ 따라서 이번 체감경기조사는 물가는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경기는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난 분기 회복세에 있던 경기전망지수가 업종에 구분 없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경기 개선을 위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경기전망조사 세부 항목 조사결과】

- ◆ 「귀사의 금년 상반기 실적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목표치 미달 (50.7%)" > "목표치 달성·근접(42.0%)" > "목표치 초과(7.3%)" 순으로 조사되었다.
- ◆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음(56.5%)" > "다소 기대(30.4%)" > "기대하지 않음(8.7%)" > "기대(4.4%)"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입지·시설·환경 관련 규제 해소 (33.3%)" > "지역 특화 산업 육성(24.4%)" >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17.1%)" = "외자·기업 투자 유치(17.1%)" > "지역 대학 지원 등 인력양성(5.7%)" > "기타(2.4%)"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차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의 질문에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36.2%)" >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21.5%)" > "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20.8%)" > "선심성 예산 집행(15.4%)" > "중앙정부·지방의회 와의 갈등(6.1%)" 순으로 조사되었다.